"작품을 통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

interview

"작품을 통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줄리안 오피는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모든 맥락과 정보가 생략된 채 오로지 굵은 윤곽선과 색 면만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인물들은 단연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스타일로 그동안 그는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해왔다. 지난 2000년 그가 디자인한 영국의 밴드 블러(Blur)의 앨범 커버는 그중에서도 잘 알려진 예다.

2015년 개관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는 한국에서의 첫 미술관 전시이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전시가 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스트 런던에 위치한 오피의 작업실을 찾았다. 다가올 전시를 준비하며 그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어시스턴트들과 함께 3D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제작한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 공간에 작품들을 배치해보며 작가는 멀리 한국에서 열릴 전시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컴퓨터 게임 같은 그의 새 웹사이트를 함께 구경하는 것으로 작업실 투어를 마치고, 건물 맨 위층에 있는 작가의 개인 미술관 겸 작업 공간에 마주 앉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공간에는 고대 이집트의 조각들부터 미국의 미술가 척 클로스(Chuck Close)의 작품에 이르는 다양한 개인 소장품들과 작가 자신의 작품들이 흥미로운 조화를 이루며 진열되어 있었다.

이번 한국 전시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두 번의 전시와 달리 한국의 미술관에서는 처음으로 갖는 개인전이다.

한국의 관객들이 많이 반가워할 것 같다.

한국은 나에게 늘 놀라운 곳이다. 미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한국 문화 특유의 다이내믹함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방인에게 한국은 여전히, 좋은 의미로, 조금 미스터리한 장소이기도 하다. 홍콩이나 대만, 일본처럼 미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 특유의 에너제틱함과 미술에 대한 뜨거운 호응은 특별하다.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 미술계에 조금이나마 관여할 수 있어 나로서는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한국 미술계와의 인연이 제법 오래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대에 처음 한국에 갔으니 꽤 오래되었다. 서울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주최하는 전시에 참여했었다. 그 무렵 내가 동아시아 지역과 맺는 관계는 사실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한 일본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다. 나고야를 시작으로 도쿄와 여러 도시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었고, 여행도 꽤 많이 한 덕에 일본 문화는 내게 꽤 친숙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게 된 것은 국제갤러리를 만난 이후부터다. 국제갤러리처럼 전통과 영향력이 있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갤러리와 같이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나는 서울을 벗어나본 적은 없지만,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내 작품이 종종 전시된다고 들었다.

그간 일본과 한국 외에도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꾸준히 전시를 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시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다거나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외부인으로서 느끼는 아시아 국가 특유의 유사성은 분명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상하이에서 전시하면서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관객과 언론 모두 매우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다. K팝 같은 격렬한 대중문화를 가진 한국과는 분명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너무 모던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낡고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물론 일본에도 특유의 미학이 있다. 전통을 잘 유지하고, 조용하다는 인상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국제갤러리같이 큰 공간을 제공하는 갤러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술계에 종사하는 이들 중 9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내 전시를 보러 오는 이들 대부분도 여성이었다.

흥미로운 지적이다. 전통에 관해 덧붙이자면 아시아 도시 대부분이 급격한 서구화를 겪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의 작품은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들의 중심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 지금 상하이에서 중국 고유의 전통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과 비교하자면 상하이의 시간 감각, 즉 과거와 현재가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완전히 신식으로 지어진 쇼핑몰이나 공항이 영국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영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모더니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다만 나는 역사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고, 정치적인 미술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러한 차이점들을 관찰할 뿐이다. 물론 각 국가별로 미술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즐거운 일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들은 지적 논쟁을 즐긴다. 독일에서 인터뷰를 하면 다짜고짜 "왜 이런 걸 만들었죠?"라고 물어본다. 전시 오프닝에 와서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독일인들이 지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일종의 예의 같은 것이다. 미국인들 또한 미술 작품을 대할 때 꽤 비판적인 편이다. 반면 영국 사람들은 전시에 와서 미술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새로 산 재킷이나 날씨 얘기만 하다 헤어진다. 상하이에서는 셀피를 같이 찍자는 사람이 많았다. (웃음)

그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국가에서 작품을 전시하다 보면 관객과 작품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또한 각기 다를 것 같다. 특히나 당신의 작품은 공공의 영역에서 전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할 때 특히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는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배스(Bath, 잉글랜드 남서쪽의 소도시)에 내 LED 작품을 설치하고 있을 때였다. 한 노신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에, 나는 내심 그가 칭찬을 하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대뜸 "이건 정말 끔찍하군요(outrage)! 이런 건 여기에 있어선 안 됩니다"라고 내게 소리쳤다. (웃음) 아마도 그 신사는 18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미술관 건물 앞에 LED 전광판이 놓인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떤 작업을 하건, 공공의 영역에 작품을 설치하는 데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어떤 작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것은 마치 해변에서 누군가 라디오를 켜는 것과 같다.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건 간에, 라디오 소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저 불쾌감을 줄 뿐이다. 미술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거나 지배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쉽다.

재미있는 비유이다. 한국에서도 일부 공공미술 작품을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공공미술 작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법을 시행한 적이 있다. 보다 많은 작가에게 공공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정책은 악용되었다. 나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이들이 거리에 설치된 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얼마짜리지? 여기에 내 세금은 얼마나 들어갔지?"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화면 속 저 여자는 나랑 걸음걸이가 비슷하네. 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걸어가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공미술 작품도 많다. 런던, 취리히, 뉴욕 등 전 세계에 설치된 당신의 작품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줄리안 오피 스튜디오 광경

또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물론 런던에도 좋은 공공미술 작품들이 분명 존재한다. 나 또한 이런 작품들이 내가 사는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예술작품들이 도시에 활기에 불어넣기 때문이다. 꼭 현대미술 작품이 아니라도, 거리에 설치된 오래된 조각상들 또한 공공미술의 일부이다. 이 작품들은 말하자면 건물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나는 내 작품도 그렇게 도시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내 시각이나 의견, 스타일이 강압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저 주변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뒤섞어 재조합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종의 기호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인물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 도로의 표지판이나, 건물 안내판에 사용되는 기호들처럼 말이다.

일종의 새로운 보편적 기호를 생산하는 셈이다.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작품이 쉽고 부담 없이 수용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작품이 새로운 환경 속에 보다 잘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중'이란 사실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려고 한다. 공공미술을 기획하는 일부 관료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큰 실수를 하곤 한다.

공공미술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당신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공과 상업 영역을 넘나드는 작가로서, 미술시장의 영향력과 역할이 점차 커져가는 미술계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나는 미술을 사랑하지만, 미술 시스템에 개입하거나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미술계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작품 활동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왔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작품을 통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미술시장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전시공간이 상업 화랑인지, 미술관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작품이 설치될 건물이 적당한지, 전시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주로 생각한다. 일례로 올해 바젤 아트페어의 경우 총 세 군데 갤러리에서 내 작품을 전시했다. 사실 아트페어는 작가로서 최고의 전시 장소는 아니다. 전시 방식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내 작품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다. 물론 사람들이 아트페어를 통해서만 내 작품을 본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누군가 미술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가격으로만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또한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같이 왜곡된 가치 판단의 방식을 작품을 통해 뒤틀고 전복하는 과정을 즐긴다. 그것은 미술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맞서 싸우는 내 나름의 방식이다.

런던=**장나윤** 통신원